

2017

하계방학 학습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참가팀 명단
- 2017학년도 하계방학

팀명	주제	팀원
모던패밀리	영어 스피킹	류지연
		유혜정
		류혜연
		이은지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오승혜
		김연제
		안이슬
		정유진
토익짱	토익	윤하정
		최유리
		최연경
		우다연
		조주연
내말이	토익	배진훈
		김한승
영어뿌셔	토익	김예진
		신민정
발볼스	전공관련 자격증	차주은
		문정선
공딱	토익	송인선
		김소연
바이오14	토익	임세연
		김송미
		이지민

2017학년도 하계 학습 스터디

| 학습 스터디(2017 하계) |

I. 학습 스터디 - 어학공부 -2017학년도 하계방학

공부하기 딱 좋네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외국어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7회

나. 활동 기간: 2017.6.24 ~ 2017.8.4

3) 팀원: 송인선, 김소연(간호학과)

4) 스터디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24	12시간 이상	베트남	베트남에서 여행 중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현지 인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여행에 필요한 팁을 얻고, 택시 및 음식 등 도움을 받는다. 숙소의 다른 여행객 과 같이 얘기한다.
06.26	12시간 이상	베트남	베트남에서 여행 중 영어로 진행되는 투어 패키지에 참여하여 여행에 온 다른 외국인들과 영어로 이야기 를 나눈다.
07.07	2시간 이상	카페	평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영어 부분 및 방학 계 획 공유
07.14	2시간 이상	카페	공부 한 것 공유, 자료 서로 보내주기
07.21	2시간 이상	카페	공부 한 것 공유, 자료 서로 보내주기
07.28	2시간 이상	카페 및 식당	미드와 영화를 보면서 영어 리스닝 실력 향상 도모
08.04	2시간 이상	카페	한달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공유

2. 학습소모임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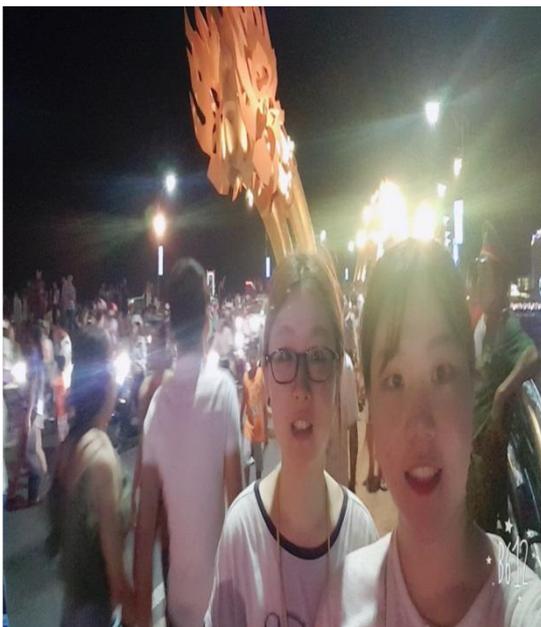
1회차

종강 후 바로 베트남여행에 왔다. 베트남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베트남 여행에 팁을 얻고, 영어 스피킹 실력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저녁 때 숙소에서 혼자 배낭여행을 온 태국인 여자 분을 만났다. 이분과 함께 다낭(베트남 여행했던 도시)의 올해 마지막 불꽃 축제를 보러 갔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셔서 우리 둘은 영어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

2회차

여태껏 자유여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어울려 보기 위해서 패키지 상품을 신청했다. 우리와 함께 에코투어와 쿠킹 클래스에 참여한 관광객 중에는 홍콩사람, 호주사람, 영국사람, 독일 사람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배를 타고 음식을 먹으며 영어로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가이드는 영어를 잘하는 베트남 언니여서 프로그램 내내 영어로 진행되어 하루 종일 영어를 쓸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3회차

한국에 돌아오기 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은 둘 다 어휘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둘 다 어휘공부를 하자고 했다. 김 학생은 자신이 평소 문법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문법공부와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송 학생은 회화와 영작에 한계를 느껴서 더 많이 말하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정해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 날 우리는 모여서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서로 말하면서 둘 다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 낸 것에 뿌듯했다. 김 학생의 경우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끌어줄 만한 자극과 선생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택했다. 먼저 학원에서 공부한 것을 스스로 복습하고 복습한 것을 송 학생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공부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송 학생의 경우 회화나 작문을 학원에서만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곳을 알아보던 결과 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송 학생의 업무는 원어민 선생님께 전화, 문자, 이메일 연락을 하고,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로 만 전화 레벨테스트를 해주는 업무, 그 밖에 영어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어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송 학생은 자신이 보낸 문자나 이메일 등을 김 학생과 나누며 영어 문자 및 이메일 보내는 법,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및 용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4회차

송학생이 먼저 김학생에게 영어로 문자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문자의 보통 시작은 “Hi”로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말로 인사할 때는 “Hello”라는 말을 쓰지만, 문자에나 편지에 쓰기에는 informal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자나 편지에 마지막에는 Thank you나 Regards, have a nice day 등의 인사말이 붙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다(formal 한 문자의 경우). 또한 엔터키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읽기 쉽게 해주는 것이 좋다.” 송 학생의 경우 회사를 대표해서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formal하고 공손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해야 했다. 그 밖에 용어들을 배우기 위해 구글을 많이 이용했는데 영어로 시간을 표기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예를 들어 7AM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 am 또는 7 a.m.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다음에는 김학생이 한 주 동안 공부한 것을 나누었다. 김학생은 학기 중 영어공부를 했을 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다며 명사파트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 advice, baggage, clothing, equipment, evidence, furniture, hair, information, luggage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라는 것을 복습했다. 또 a hyundai(현대차), a success(성공한 사람)과 같이 상황에 따라 가산명사로 쓰일 수 있는 불가산명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단수, 복수를 기준으로 명사의 형태를 구분했을 때, people과 같이 복수형만 존재하는 경우, mathematics와 같이 형태는 s가 붙어 복수이나 단수로 쓰이는 경우, fish 와 같이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은 3가지 그룹의 명사들에 대해 알려주었다.

5회차

이번 만남에는 김학생은 전치사 파트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나누었다. 전치사 파트의 경우에는 워낙 예외적인 사용들이 많기에 최대한 반복하며 외우고 다양한 사용을 접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다. 공부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by의 용법은 by 뒤에 수단을 쓰려면 무관사 단수의 형태로 써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I'm writing this report by computer.와 같이 말이다. 이때 by the computer, by computers와 같은 식으로의 사용은 불가하다. 만일 내 컴퓨터를 사용해서 라는 식으로 쓰고 싶을 때는 using my computer와 같이 by를 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또 by의 용법 중 주의해야 할 것은 'by+the+단위' 이런 구조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she sells that silk by the meter. 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다음에는 송학생이 이메일 쓰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메일도 문자와 비슷한 형식으로 쓸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Dear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보통 일상에서는 Hi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밖에 송학생은 비슷한 영어 표현들이 헷갈려서 검색을 하며 많이 배웠다. 예를 들어 sorry to keep you waiting, sorry I kept you waiting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계속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계속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기다림이 끝임을 알리기 전)” 라는 차이가 있다. 또 give us a call 다음 전치사on인지, at인지도 헷갈렸는데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현지 미국인들도 어떤 것이 맞는지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송학생은 김학생에게 문장이 헷갈리는 경우 항상 문장을 구글에 쳐서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해주었다.

6회차

방학의 반 이상을 영어를 공부하는데 보냈고, 공부가 재미있긴 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그래서 휴식을 취할 겸 영어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로 하였다. 일단 배부르게 밥을 먹고 함께 영화 “Baby Driver”를 자막 없이 시청했다. 영화를 보면서 몇몇 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었음에 매우 만족스러웠다. 둘 다 방학 동안 영어 실력이 늘었음을 확인 했고 뿌듯했다.

7회차

이제 방학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에 두 학생은 여태까지 했던 스터디에 대해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둘은 방학 동안 각자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을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실생활 속 영어, 문법에 대한 학습을 함께 진행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김학생의 경우에는 어휘집 암기, 장문·단문 독해를 학습하였다. 송학생의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을 하는 연습을 하였고, 원어민들과 소통하며 스피킹과 작문을 연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남은 방학 동안 각자 공부를 해서 그 동안의 영어학습에 대한 평가 지표로 9월 토익 시험에 응시하기로 했다. 간호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기에 남은 한 달의 시간을 더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어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생은 꾸준한 어휘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학기 중에는 가지고 있는 어휘집을 평일에는 하루에 한 단원씩 외우고 주말에는 평일 동안 암기한 단원을 복습하는 식의 계획을 세웠다. 송학생은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 및 고급어휘들을 더 외우고, 토익 리딩 뿐만 아니라 원서를 읽으면서 문장력을 늘리고, 빈 칸 채우기 문제에 “감”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남은 방학 동안에는 서로 카톡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응원해주거나 조언해주기로 하고 스터디를 마쳤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조원 모두 방학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고,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서 실력향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형성한 습관을 통해 개강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던패밀리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외국어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5회

나. 활동 기간: 2017.7.7~ 2017.8.2

3) 팀원: 류지연, 유혜정, 류혜연, 이은지(의생명과학과)

4) 스터디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7	2시간	토즈스터디 강남점	미드 빅뱅이론, 모던패밀리, IT Crowd 1회씩 시청하기
07.10	2시간	토즈스터디 강남점	미드 빅뱅이론을 자막 없이 본 후, 스크립트 채워 넣고, 표현 학습하기
07.22	2시간	토즈스터디 강남점	미드 Doctor Who를 자막 없이 본 후, 스크립트 채워 넣고, 표현 학습하기
07.25	2시간	토즈스터디 강남점	미드 Doctor Who를 자막 없이 본 후, 스크립트 채워 넣고, 표현 학습하기
08.02	2시간	토즈스터디 강남점	미드 Unbreakable Kimmy Schmidt를 자막 없이 본 후, 스크립트 채워 넣고, 표현 학습하기

2. 학습소모임 소감

저희 모던패밀리 팀은 원어민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을 익혀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국드라마와 그 스크립트를 이용했습니다. 매 스터디마다 한 사람이 미리 특정 회를 시청한 뒤, 학습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씬에 해당하는 스크립트에 빈칸을 뚫어왔습니다. 그 후, 나머지 스터디원들과 함께 모여 자막 없이 해당 회를 시청한 뒤, 서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드라마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뒤, 미리 빈칸을 뚫어 온 씬을 재시청하며 빈칸을 채웠고, 핵심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은 똑같이 따라해 보았습니다. 비록 5회의 적은 만남이었지만, 저희는 이번 스터디를 통해 자유로운 회화에 필요한 표현 여러 가지를 익힐 수 있었고, 발음도 향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스터디가 끝난 후엔 스터디 지원금으로 맛있는 밥도 사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영어 회화 공부는 혼자 할 수 없는 공부인데, 이렇게 방학 동안에도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학습지원센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이오14팀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토익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기간: 2017.6.28 ~ 2017.08.16

3) 팀원: 김송미, 이지민, 임세연(바이오공학과)

4) 스터디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28	19:00-21:00	차바이오컴플렉스 B204	토익 단어 100개 시험, 동사의 형태와 종류
07.05	19:00-21:00	차바이오컴플렉스 B204	토익 단어 100개 시험, 주어와 수일치
07.12	19:00-21:00	차바이오컴플렉스 B204	토익 단어 100개 시험, 능동태/수동태
07.19	19:00-21:00	차바이오컴플렉스 B204	토익 단어 100개 시험, 시제와 가정법
07.26	19:00-21:00	차바이오컴플렉스 B204	토익 단어 100개 시험, to 부정사
08.02	19:00-21:00	차바이오컴플렉스 B204	토익 단어 100개 시험, 동명사
08.09	19:00-21:00	차바이오컴플렉스 B204	토익 단어 100개 시험, 분사
08.16	19:00-21:00	차바이오컴플렉스 B204	토익 단어 100개 시험, 명사

2. 학습소모임 소감

김송미

토익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혼자 진행하려니 막막했고, 양도 방대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도 많아 힘들었다.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 양을 정해두고 서로 모르는 것을 묻고 대답하며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느껴졌다.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을 서로 채찍질 하며 꾸준히 하다 보니 단어도 많이 늘었고,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나 좋았다. 예전 토익은 많이 봤었지만 신토익으로 바뀐 이후로는 감을 잘 못 잡았었는데, 신토익에 대해 아는 사람들과 진행하니 감도 빠르게 잡혀서 더 좋았다.

이지민

혼자 토익을 공부했을 때는 빨리 지치고 오래 지속을 하지 못했었는데 한 주씩 모여서 미리 정해 놓은 숙제들을 확인하고 서로 도움을 줘가면서 공부를 하니 스터디 기간 동안 1권을 끝낼 수 있어서 뿌듯했다. 또 자칫 쉽게 답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 사람씩 틀린 것을 같이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많은 문제를 확인 해 볼 수 있었고 함께 같이 오랜 시간 고민한 문제들의 경우 오래 기억에 남았다. 특히 문법을 외울 때 함께 쉽게 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시험을 치면서 확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혼자 외울 때는 잘 외워지지 않았던 것을 차근차근 기억해 나갈 수 있어서 유익한 스터디 모임이었다.

임세연

혼자서 공부할 때는 미루게 되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게 되니까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같이 공부하니까 더 힘이 되었다.. 또한 서로 자극이 되고 서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가 되니까 더욱 토익 공부하기에 편안했다.

| 학습 스터디(2017 하계) |



토익짱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토익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7회

나. 활동 기간: 2017.6.19 ~ 2017.08.07

3) 팀원: 윤하정, 최유리, 최연경, 우다연, 조주연(바이오공학과)

4) 스터디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19	13:00-16:00	차바이오컴플렉스 도서관	section1 문장성분 chapter1 주어/동사/목적어/보어/수식어
06.25	13:00-16:00	차바이오컴플렉스 도서관	section2 동사구 chapter2~4 동사의 형태와 종류/시제/능동태, 수 동태와 가정법
07.03	13:00-16:00	차바이오컴플렉스 도서관	section3 준동사구 chapter5-7 to부정사/동명사/분사
07.10	13:00-16:00	차바이오컴플렉스 도서관	section4 품사 chapter8-12 명사/대명사/형용사/부사/전치사
07.17	13:00-16:00	차바이오컴플렉스 도서관	section 5 접속사와 절 chapter 13-16 등위,상관접속사/관계절/부사절 /명사절
07.24	13:00-16:00	차바이오컴플렉스 도서관	section6 특수구문 chapter17 비교, 병치, 도치구문
08.07	13:00-16:00	차바이오컴플렉스 도서관	section1.2.3 reading 질문, 지문 유형별 공략

| 학습 스터디(2017 하계) |

2. 학습소모임 소감

이제 취업을 준비 할 학년이라 같이 준비하면서 서로 더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돈과 시간을 들이며 강남으로 학원을 다니는 것 보다 서로의 중간지점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만나서 각자 공부해 온 것을 토론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보충해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 모든 학생이 모르는 것들은 인터넷에서 찾아가며 공부를 진행하였다. 누군가가 주입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면서 공부하니 훨씬 효율도 좋았다.

내말이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토익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4회

나. 활동 기간: 2017.7.5~ 2017.7.20

3) 팀원: 배진훈, 김한승 (바이오공학과)

4) 스터디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5	5시간	정자청소년 수련관	토익 토익단기공략600
07.10	5시간	정자청소년 수련관	토익 토익단기공략600
07.15	5시간	정자청소년 수련관	토익 토익단기공략600
07.20	5시간	정자청소년 수련관	토익토익단기공략600

2. 학습소모임 소감

동기 형과 같이 스터디를 하다보니 더 가까워졌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서 방학을 보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방학을 허무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틈틈이 공부를 하여 보람찬 방학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라고 동기들이나 선배님, 후배님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스터디가 주된 목적이니까 마냥 놀진 않았지만 같이 공부하다 쉴 때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II. 학습 스터디 - 자격증 공부 -2017학년도 하계방학

발붙스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ACSM 미국개인 운동지도사 자격증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7회

나. 활동 기간: 2017.6.23~ 2017.8.6

3) 팀원 : 차주은, 문정선(스포츠의학과)

4) 스터디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23	18:00-21:00	스포츠의학과 실습실(604호)	- 세부 계획 세우기 및 학습 계획표 작성 - 의학용어 퀴즈 풀이와 기능해부학 복습
06.27	16:00-21:00	스포츠의학과 실습실(604호)	- ACSM 가이드 라인 공부, 시험대비 학습 - 오답노트 작성
07.05	18:00-21:00	분당 스포엑스 헬스장	- 폼롤러 스트레칭 및 자가 이완법 실습 - 스포츠 마사지 테크닉 매뉴얼 복습
07.09	9:00-18:00	리드핏 센터	- 보수를 이용한 밸런스 운동 실습, 플라이오 메트릭 운동 실습
07.21	9:00-18:00	다빈치 아카데미 교육장	- SPS 측만증 사선 안정화 국제 워크숍 참가
07.24	9:00-18:00	다빈치 아카데미 교육장	- SPS 측만증 사선 안정화 국제 워크숍 참가
08.06	12:00-16:00	분당 마노핀 카페	- 매뉴얼 테크닉 복습 및 건강운동관리사 시험대 비

| 학습 스터디(2017 하계) |

2. 학습소모임 소감

하계 학습반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습 및 공부를 보충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칫 해이하게 보낼 수 있는 방학기간에 진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자기개발과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계 방학 스터디의 효과와 결과로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 진로에 대한 폭 깊은 이해 및 전공 심화 학습
- 자격증 대비 학습을 통한 ACSM 시험 전원 합격(문정선, 차주은)
- BOSU를 활용한 운동 세미나
- SPS 사선안정화 교육 국제 수료증 취득
- 취업에 대한 시야의 확보

이러한 성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한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의미 깊은 방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Ⅲ. 학습 스터디 - 전공 공부 -2017학년도 하계방학

정신분석 미술치료 스터디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정신분석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기간: 2017.7.3 ~ 2017.8.18

3) 팀원: 오승혜, 김연제, 안이슬, 정유진(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4) 스터디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3	18:00-19:00	노원 펭귄 드링스커피	학습목표 : 스터디 오리엔테이션 및 계획수립 달성내용 : 교재 선정, 스케줄 조정, 첫 활동 영화 선정, 재정 관리 방식, 규칙 진행방식 : 스터디 원들과의 대화 보충자료 : 교재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
07.07	18:00-21:00	노원 W DVD방	학습목표 : 멜라닌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이해(질투) 달성내용 : 조커로 알아보는 Envy 진행방식 :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정보 습득 보충자료 : 다크나이트 (The Dark Knight, 2008)
07.12	15:00-18:00	판교 스타벅스 붓들마을점	학습목표 : 멜라닌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이해(질투) 달성내용 : 조커로 알아보는 Envy 진행방식 : 영화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 토론 및 토의 방식 보충자료 : 교재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

07.14	14:30-16:40	군자 CGV	<p>학습목표 : 멜라닌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이해(질투)</p> <p>달성내용 : 가네코 후미코로 알아보는 대상관계이론 속 질투</p> <p>진행방식 :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정보 습득</p> <p>보충자료 : 박열 (Anarchist from Colony, 2017)</p>
08.02	16:00-18:00	판교 스타벅스 붓들마을점	<p>학습목표 : 멜라닌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이해(질투)</p> <p>달성내용 : 가네코 후미코로 알아보는 대상관계이론 속 질투</p> <p>진행방식 : 영화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 토론 및 토의 방식</p> <p>보충자료 : 교재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p>
08.11	14:00-15:00	건대 스터디카페	<p>학습목표 : 멜라닌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이해(질투)</p> <p>달성내용 : 개츠비로 알아보는 jealousy</p> <p>진행방식 :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정보 습득</p> <p>보충자료 :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2013)</p>
08.16	16:00-18:00	판교 스타벅스 붓들마을점	<p>학습목표 : 멜라닌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이해(질투)</p> <p>달성내용 : 개츠비로 알아보는 jealousy</p> <p>진행방식 : 영화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 토론 및 토의 방식</p> <p>보충자료 : 교재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p>
08.18	-	-	<p>학습목표 : 스터디 마무리</p> <p>달성내용 : 소감나누기, 개선하면 좋을 점</p> <p>진행방식 : 스터디 원들과의 대화</p> <p>보충자료 : -</p>

학습 스터디(2017 하계)

2. 학습소모임 소감

김연제

3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정신 분석 수업에서 썼던 교재를 다 꼼꼼히 읽어보고 책에서 제시하는 영화들을 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하계 방학 스터디를 통해 나머지 부족했던 점을 보충했던 것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다. 평소에 공부하는데 있어서 이론을 그저 외우기보다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정해진 분량에 대한 진도를 나가야 했던 학교 수업과 달리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음미하고 적용해가면서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는 클라인의 질투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제로 잡아 공부했는데 좀 더 다양한 주제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기 중에 학습 스터디를 통해 주제를 확장 시켜 나가는 과정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승혜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을 때, 무시무시한 이름과 달리 이해하기 쉽게 영화로 풀어서 이론 이해를 돕도록 하는 수업이 참신했고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주어진 수업 시간 동안 교재에 나온 영화를 모두 감상할 수 없었고 그러한 점이 무척 아쉬웠는데, 의견이 같았던 친구들을 만나 방학 동안 스터디를 할 수 있어서 무척 즐거웠다. 학교에서 지원이 없었다면 분명 우리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기에 부담스러웠을 수 있었는데,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많이 만나고, 많이 보고,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연제와 같이 기획했을 때는 교재에 있는 영화를 거의 다 보면서 간단하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려 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다 보니 알게 된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론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달라서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학습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방학 동안 꽤 많은 시간을 함께했는데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깊이 있게 한 주제를 다룰 수 있었던 경험이 좋았고, 이번에 다뤘던 주제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가 많아서 앞으로 또 하계 된다면 어떤 주제로 이번 스터디처럼 대화를 나누게 될지 기대된다.

안이슬

계속해서 공부해도 생소하고 어려운 정신분석 개념들을 영화 속 인물들을 통해 배운 지난 학기 수업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수업 때 다루지 못한 영화들도 보고 배웠던 개념들에 대해 방학 때 다시 복습할 수 있었다. 특히 동기들과 함께 공부한 것들을 나누며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질투라는 한정된 주제만 공부하고 다룬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개념들도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를 앞으로도 많이 찾아보며 나누고 싶다.

정유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영화를 함께 시청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보통 영화를 보면 그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영화 스터디 말고 다른 종류의 스터디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종합 소감

우리 스터디는 어려운 정신분석이론을 영화로 쉽게 풀어서 이해하려는 점에서 좋았다. 이론을 익힐 때 단순 암기만 할 경우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때나 이론을 적용시킬 때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이론의 이해에 목적을 두고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거나 스터디원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설명이나 이론 적용 시킬 때 훨씬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공부를 했지만 영화와 이야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유롭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 학습 스터디(2017 하계) |



